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이용한
도자 조형 연구
-초상 조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using the Deformation Technique
-Focusing on the Portrait Sculpture-

2022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채 율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이용한

도자 조형 연구

-초상 조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using the Deformation Technique

-Focusing on the Portrait Sculpture-

지도교수 최병건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채 율

채율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심사위원장 김 재 용 (인)

심사위원 유 의 정 (인)

심사위원 최 병 건 (인)

요 약

제목 :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초상 조각을 중심으로-

데포르마시옹은 시각예술의 사조와 경향이 변화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왔다. 현대에 와서 데포르마시옹은 인간의 본능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써 그 활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대상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초상 조각 또한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본 연구는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초상 조각에 대입시켜 대상화된 조각의 형상을 왜곡시킨다. 이를 통해 초상 조각에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야기되는 감정을 알아보고 대상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을 탐구하고,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과거 실존 인물이었던 초상 조각에 적용하였다. 둘째, 한 대상이 가진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틀에서 공기의 주입과 압축을 이용해 형태를 도출하였다. 셋째, 데포르마시옹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표현은 여러 가지 감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극대화는 2차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하나의 몰드에서 공기의 압축과 주입을 이용한 변화를 통해 몰드 이용의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재료의 혼합을 통한 작품 제작은 형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포르마시옹의 표현 대상을 확장시켜 하나의 몰드를 이용한 형태적 변화를 전개해간다면, 대상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 차

요약.....	i
표목차.....	iv
도목차.....	iv
작품목차.....	v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데포르마시옹의 일반적 고찰.....	3
1) 데포르마시옹의 정의.....	3
2)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의 유형 및 특징.....	4
(1) 과장.....	5
(2) 왜곡.....	6
(3) 단순화.....	7
(4) 절단 및 파손.....	8
(5) 가상성.....	8
2. 초상 조각의 일반적 고찰.....	11
1) 초상 조각의 개념.....	11
2) 초상 조각의 역사.....	11
3. 초상 조각을 통한 데포르마시옹의 작품 사례 분석.....	16
III. 작품제작 및 설명.....	18
1. 작품계획.....	18
1) 초상 조각 선정.....	19
2) 성형 방법.....	20
3) 재료 혼합.....	21
2. 제작과정.....	22
1) 몰드 제작.....	23
(1) 석고 몰드.....	23

(2) 실리콘 몰드	24
2) 이장 및 혼합물 제작	24
(1) 일반 이장	24
(2) 페이퍼클레이 이장	24
(3) 혼합물	25
3) 성형	25
(1) 이장 주입 및 성형	25
(2) 혼합물 주입 성형	27
4) 소성 및 기물 표면 연마	28
3. 작품 해설	29
 IV. 결론	 39
 참고문헌	 41
영문초록(Abstract)	43

표 목 차

<표 1>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의 분류 및 해석	10
<표 2> 초상 조각의 종류 및 설명	19
<표 3> 데포르마시옹 표현에 따른 성형 기법	20
<표 4> 광물질의 종류에 따른 소성 결과	21
<표 5> 페이퍼클레이 조합비	25
<표 6> 혼합물 조합비	25

도 목 차

[도 1] 페르난도 보테로, 「Dancers at the bar」, 2001	5
[도 2] 최수양, 「Islets of Aspergers Type VI」, 2009	5
[도 3] 프란시스 베이컨, 「Three Studies of George Dyer」, 1966	6
[도 4] 파블로 피카소, 「Tete de taureau」, 1942	7
[도 5] 앙리 마티스, 「Icarus」, 1947	7
[도 6] 마틴 클리마스, 「Untitled」, 2009	8
[도 7] 바우커 더 프리스, 「Rebirth of a tepot」, 2019	8
[도 8] 데이비드 라샤펠, 「Elton John (Never Enough, Never Enough)」, 1997	9
[도 9] 한경우, 「Green House」, 2009	9
[도 10] 네페르티티 흉상	12
[도 11]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	13
[도 12] 루이 14세의 흉상	14
[도 13] 디드로 흉상	14
[도 14] 코빠가 부러진 남자	15
[도 15] 신미경, 「화장실 프로젝트」, 2004-진행중	16
[도 16] 데비 한, 「Battle of Conception」, 2010	16
[도 17] 데비 한, 「Mass of Perception」, 2012	16
[도 18] 다니엘 아샴, 「Blue Calcite Eroded Moses」, 2019	17
[도 19] 다니엘 아샴, 「Rose Quartz Eroded Hamadryade」, 2019	17

[도 20] 완성 된 석고 몰드	23
[도 21] 실리콘 몰드 제작과정	24
[도 22] 완성된 실리콘 몰드	24
[도 23] 물에 불린 휴지	25
[도 24]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한 성형 방법	26
[도 25] 청소기를 이용한 성형 방법	26
[도 26] 혼합물을 이용한 작업 과정	27
[도 27] 초벌 소성 후 연마작업 전	28
[도 28] 초벌 소성 후 연마작업 후	28

작품목차

[작품 1] Deformation A1	29
[작품 1] Deformation A2	30
[작품 3] Deformation A3	31
[작품 4] Deformation A4	32
[작품 5] Deformation A5	33
[작품 6] Deformation J1, Deformation J2, Deformation J3	34
[작품 7] Deformation H1, Deformation H2, Deformation H3, Deformation H4, Deformation H5, Deformation H6	35
[작품 8] Deformation A6, Deformation A7, Deformation A8	36
[작품 9] Deformation A9	37
[작품 10] Deformation G1, Deformation G2, Deformation G3, Deformation G4, Deformation G5	38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데포르마시옹이란 변형, 왜곡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창적인 조형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통해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는 단 시간 안에 다량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감성적 요소까지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데포르마시옹은 인간의 본능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써 그 활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시각예술의 사조와 경향이 다른 유형으로 변화할 때마다 데포르마시옹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왔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을 숭배하기 위해 제작된 조각은 관념적 세계관에 의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형상을 넘어 실존 인물에 대한 제작으로 이어졌다. 이때 이상적 비례미를 적용하는 등 부분적인 데포르마시옹이 행해졌다. 인간은 대상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대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 즉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²⁾ 대상이라는 실체보다 대상에 덧씌워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두상이나 흉상 조각 또한 그 대상의 권력과 크기, 압도적이며 숭고한 분위기, 특정 시대를 산 시간의 아우라와 동시에 영원성과 불멸성을 내뿜는 존재로 탈바꿈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공공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정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써 매너리즘을 통한 데포르마시옹이 등장하였으며, 17세기 서유럽 회화에서는 르네상스의 이성 중심의 직관적인 표현에서 변화되어 감성 중심의 공상적인 바로크 양식의 데포르마시옹이 제시되었다. 또한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사상과 심리상태를 의식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작가들의 조형의지로 인해 사실주의가 부정되면서 데포르마시옹은 중요한 예술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초상 조각에 대입시켜 대상화된 조각의 형상을 왜곡시킨다. 이를 통해 초상 조각에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야기되는 감정을 알아보고 대상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월간미술, (1998), 「세계미술용어 사전」, p.89

2) 최효잔, (2016), 「장 보드리야르」, 커뮤니케이션북스, p.43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초상 조각을 주제로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이용한 도자 조형 연구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상 조각은 두상으로 선택한다.

둘째, 초상 조각의 이론적 고찰은 본 작품에서 주를 이루는 왜곡 부위인 얼굴 중심 조각으로 제한한다.

셋째, 초상 조각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현상을 시대적으로 대변하고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존 인물 중에서 선택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감정을 분류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에 따라 왜곡의 정도와 형태를 결정하고 그룹화하여 작품을 표현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에 맞는 제작 방법을 선택한다.

넷째, 재료의 혼합을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을 이용해 왜곡의 형태적 한계를 극복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데포르마시옹의 일반적 고찰

1) 데포르마시옹의 정의

Deformation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로 라틴어의 ‘Deformatio’에 어원을 두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변형되는 작용이나 상태’, ‘변형의 결과 혹은 형태의 손상’등으로 정의되며 예술적 요구에 의해 대상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으로 형태를 깨뜨려 시각적 부조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로는 모양을 수정하거나 구조를 변화시켜 대상 고유의 형태를 벗어나 비틀린 상태, 구부러지거나 일그러진 현상과 같이 물체에 물리적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미술 사전적 의미로는 변형, 왜형 등을 의미하며, 조형예술에서 자연의 대상을 변형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원근법, 단축법, 미술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의 표현을 과장되게 재현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사실보다 작가의 조형 의지가 중시되고 주관을 강조하여 수용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해 형이나 공간 등을 변형하여 독창적인 조형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등의 조형적 특색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즉, 특정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 왜곡, 변형하여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작품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창작자의 의도를 강조하여 시각적 효과를 상승시키는 표현기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조형 의지를 보다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으며 형태를 통한 시각적, 심리적 효과를 유도하여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상징성을 부여해 현실을 투영시켜 보다 직접적인 현실 반영이 가능하다.

3) 도서출판 승례문 편집국편, (1991), 「미술사전1」, 도서출판 승례문, p.16

2)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의 유형 및 특징

형태를 깨뜨린다는 것은 전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곡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며 오늘날 모든 예술에서 접할 수 있다. 인간의 조형의식은 이상적 균형미와 일정한 패턴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현실을 초월한 본질적 표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예술가는 왜곡적 표현을 이용한다. 수용자는 정형에 익숙하므로 시각적 친숙감에서 멀어져야만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즉, 시각적 충격은 익숙한 형태의 변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의 괴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대상을 주관적 시각에 따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인적 표현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형태를 변형시킨다. 따라서 작가는 형태의 왜곡을 통해 수용자에게 습관적인 감상법을 파괴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의 특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 표현에 의해 의도적으로 강조, 생략 혹은 확대, 축소한다. 이것은 같은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여러 형태로 표현되며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작가의 관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로써 미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대상의 변형은 작가의 주관적 판단과 변형된 대상이 주는 시각적 효과를 동시에 의미한다. 즉,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와 관념, 변형된 대상이 주는 시각적 효과로부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변형을 통한 대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나가는 것은 조형예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변형은 모양이나 형태를 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 방법은 현대 회화와 조각에서 보이는 형태의 변화를 근거로 크게 과장, 왜곡, 단순화, 절단 및 파손, 가상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한 미학적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1) 과장

과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 의미로는 물체가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실제보다 부풀려 표현하는 과장의 경우 사물의 모습, 크기, 특징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더욱 선명한 인상과 강렬한 감동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⁴⁾



[도 1] 페르난도 보테로
「Dancers at the bar」,
2001



[도 2] 최수앙
「Islets of Aspergers Type VI」, 2009

페르난도 보테로(Fernando Botero)의 작품 [도 1]은 대상의 형태나 부피를 크게 해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킨 형태로 표현하여 서술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데포르마시옹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균형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비례감과 입체감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시각적인 강렬함과 의외성을 유발한다.⁵⁾ 최수앙의 작품 [도 2]는 크기의 확대를 통한 과장을 이용한 작품이다. 형태의 돌출이나 팽창,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한 과장은 고유의 비례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특이하거나 강조된 형태를 갖게 된다.⁶⁾ 이러한 대비에 의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과장된 형태는 실제 대상이 가진 본질을 극대화하여 보다 명료하고 완결성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장을 통한 변형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상의 외적 재현이 아닌 작가의 주관에 따라 미적 관념을 표현한다. 따라서 과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시각적 자극의 유발을 통해 작가의 의도

4) 김보라, (2016), 「데포르마시옹을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5) 윤영범, (2013),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 커뮤니케이션북스, p.315

6) 이기열, (2007), 「현대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p.401

와 주관을 더욱 명료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작가와 수용자의 상호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2) 왜곡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그릇되게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 의미로는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비정상적이고 부조화 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시각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파괴하여 표현함으로써 대상이 갖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는 이에게 낯센과 시각적 모호함이 전달되어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⁷⁾



[도 3] 프랜시스 베이컨,
「Three Studies of George Dyer」, 1966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 [도 3]은 대상의 형태를 휘거나 비틀린 상태로 변형하여 대상이 지니는 고유의 형태를 모순되게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 왜곡하면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형된 이미지를 통해 거부하고 일탈을 표현하여 시각적 자극을 일으킨다.⁸⁾ 형태의 왜곡은 특정 부위의 생략이나 반복, 디자인 요소의 위치나 형태의 기능 변경,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하는 등 기형화된 형태로 표현하여 동시적 인식에 의해 수용자의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대상 고유의 형태를 휘거나 비틀린 상태 및 이질적인 비례로 변형하는 왜곡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살려내고 강조한다.⁹⁾ 재현의 체계에서 나타난 왜곡은 절단 및 훼손, 투시나 굴절, 질감과

7) 이정숙 외 1명, (2009), 「디지털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p.476

8) 윤영범, (2015), 앞의 책, p.23

9) 정선영, (2003),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왜곡된 심상과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3-10

색채 등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의해 이미지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강렬함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¹⁰⁾

이러한 왜곡을 통한 변형은 대상 그 본연의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나타나는 유희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작가의 의도된 왜곡은 그 형태가 주는 시각적, 심리적 효과로 인해 작가와 수용자 간에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단순화

단순화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그 자체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형태나 빛깔을 간결한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물의 구성 요소들을 생략하거나 최소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인 면을 부각시키므로 수용자에게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¹¹⁾ 형태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 4] 파블로 피카소
「Tete de taureau」, 1942



[도 5] 앙리 마티스
「Icarus」, 1947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도 4]는 황소의 머리를 사물을 이용해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작품 [도 5]는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모습을 색종이를 이용해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단순화된 형태는 사실적 이미지 보다 간결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불필요하거나 무

10) 김수진, (2008), 「데포르메기법을 이용한 인체 변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11) 김은정 외 1명, (201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p.86

의미한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이를 통해 의미 전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순화는 과학적 측면에서 사고 절약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이러한 법칙은 필요 이상의 것을 낭비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과도 상응한다. 즉, 의미 없는 부분의 배제와 단순화를 통해 간결성과 명료성을 갖게 되어 작가의 의도를 집약 시킨다.

(4) 절단 및 파손

절단이란 일반적으로 ‘끊어 내거나 잘라내는 형식’이며 파손이란 ‘형식이 깨지거나 본래의 형태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래의 형태뿐 아니라 형질까지도 상실됨을 내포한다. 절단, 파손 및 훼손에 의한 변형 방법은 손쉽게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¹²⁾



[도 6] 마틴 클리마스
「Untitled」, 2009



[도 7] 바우커 더프리스
「Rebirth of a teapot」, 2019

마틴 클리마스(Martin Klimas)의 작품 [도 6]의 경우 도자 인형의 깨지는 찰나를 담은 사진 작품이다. 파괴의 과정을 포착하여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바우커 더프리스(bouke de vries)의 작품 [도 7]은 파괴된 도자기 파편을 재건하여 쓸모없는,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5) 가상성

가상성의 사전적 의미는 ‘주관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이다. 일반적 의미로는 사실상 그렇지 않지만 본질 또는 효력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¹³⁾이라는 뜻으로 시각적 현상, 착시,

12) 김문경, (2004), 앞의 책, p7

13) 마이클 하임, (1997), 여명숙 옮김,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p.180

환영, 환각 등의 본질적인 모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허구의 세계 혹은 상상의 세계를 구획 짓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를 통해 현실을 공유하고 존재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 즉 감각 가능한 것으로 시공 속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신선한 시각적 자극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¹⁴⁾



[도 8] 데이비드
라샤펠
「Elton John (Never
Enough, Never
Enough)」, 1997



[도 9] 한경우
「Green House」, 2009

데이비드 라샤펠(David LaChapelle)의 작품 [도 8]의 경우 비현실적인 현상을 상상력과 착시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주제를 전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⁵⁾ 한경우의 작품 [도 9]의 경우 3차원적 사물을 2차원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가상 공간에 존재하도록 하여 대상이 가진 잠재성에 의해 정지된 이미지에서도 화면의 구도나 표현 등을 통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가상성은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대상일 수 있으나 작가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상성을 통한 변형은 좁은 의미에서는 정신적 공상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현실과 대비되는 세계다.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가상 세계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은 다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계의 다수성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이론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¹⁶⁾ 따라서 가상성은 시각화를 통한 경험에서부터 구체화된 심상이나 상황을 상상하게 하여 정신적 작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작가와 수용자가 다차원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14) 서승미, (2005), 앞의 책,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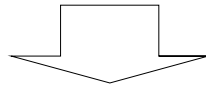
15) 윤영범, (2015), 앞의 책, p.23

16) 김성미, (2004). 「현대미술에서의 가상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다음의 <표 1>은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과장, 왜곡, 단순화, 절단 및 파손의 시각적 표현에 의해 도출되는 1차 감정의 극대화는 가상성을 통한 2차 감정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가상성은 자신의 상황과 대입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데포르마시옹은 적극적으로 수용자와의 소통에 개입하게 된다.

<표 1>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의 분류 및 해석

표현	과장	왜곡	단순화	절단 및 파손
설명	대상의 균형과 질서를 무시, 극대화	휘거나 비틀림	구성 요소의 생략, 최소화	형질의 상실, 일탈적 행위
1차 감정	집중, 놀라움, 쾌감, 흥미 유발	불안, 낯설음, 모호함	간결성, 명료성	일탈감, 쾌감, 대리만족



표현	가상성
설명	비현실적 상황의 현실화, 시각적 현상, 착시, 환영, 환각, 본질적 모호성
2차 감정	환상적, 신선한 자극, 자유로움

2. 초상 조각의 일반적 고찰

1) 초상 조각의 개념

초상 조각은 익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당대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는 초상을 포함한다. 초상 조각은 형식상 두상, 흉상, 반신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조형적 형식 변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며 동시대의 인간 정신을 관통한다. 초상이란 특정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얼굴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신체 중 ‘얼굴’은 촉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의 집합체로써 본래 보는 능력,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의 겉모습을 통칭하는 의미였다.¹⁷⁾ 이렇듯 얼굴은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객체적 타자로서도 존재한다. 초상 조각은 위와 같은 의미를 구현한 시각 이미지로서 실제 대상과 닮은 정도나 과장과 모방을 통해 이상적인 정신성을 표출한다.

초상 조각은 보편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기념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실물의 재현이라는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요자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식과 표현이 발생되었으며 수요자 역시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초상 조각은 당대의 미적 유행이 첨가되거나 사회 문화적 의미가 농축되는 등 조각가의 창조력이 가미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형식 그 자체와 표현성을 중요시하기도 한다.¹⁸⁾

2) 초상 조각의 역사

전통적으로 재료 면에서 점토를 소성한 테라코타, 나무, 상아, 청동주물은 얼굴의 다양한 표현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종교 의식을 위한 초상 조각은 또 다른 표현형식이다. 대부분의 원시 종교에서 얼굴은 특별한 상징물로 인식된다. 예컨대, 아프리카 원시 미술에서 가면과 같은 얼굴 조각은 초현실적인 샤머니즘이 깃들어있다. 부족과 집단을 수호하는 숭배자의 오브제 혹은 초인적인 정령을 대신하는 기호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원시 조각은 이후 20세기 초 입체주의 미술에 영향을 주어 형식적인 구성과 과감한 변형을 통해 기존의 미술 형식을 부정하는 방식을 불러왔다. 이런 연관성은 당시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문화현상의 유행으로 볼 수 있다.¹⁹⁾

17) 프랑스어 ‘얼굴(visage)’이란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videre’의 과거분사 ‘visus’에서 파생한 것. 니콜라브리, 강주현 역, (2001), 「얼굴의 역사」, 작가정신, p.18

18) 김석, (2018), 「20세기 이후 얼굴조각의 표현적 특징 연구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미술 이전까지-」, 기조조형학연구, p83-84

19) 에드워드 루시 스미드, 김춘일 역, (1987), 「현대미술의 흐름」, 미진사, p.80-85

남미의 고대 유적인 아즈텍과 마야문명의 유물 미술에 나타난 초상 조각 역시 대부분 주술적인 도구와 의식용 오브제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도 불교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조각에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초상 조각은 인체 조각의 형식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인체 형상을 구현하거나 인체를 통해 드러내는 조각 방식에서 얼굴의 표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미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흔하고도 지배적인 주제이다.²⁰⁾ 인간은 누구나 자아 성찰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초상 조각의 역할과 그 의미는 내면과 외면을 넘나들며 신체 육체 몸을 초월한다. 이렇듯 주목성을 바탕으로 초상 조각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해석을 내려준다.

19세기 말 유럽의 미술은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였고 아울러 빛의 과학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인상주의 미술과 같은 진보적인 양식이 새롭게 양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조각의 영역에서는 신고전주의의 전통적인 양식을 로댕이라는 거장을 통해 단번에 혁신적인 변화로 이끌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미술의 전, 후 흐름은 급진적인 변모가 촉발되어 다양한 양식과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사에서 초상 조각의 변천 과정을 보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시대 초상 조각은 오랜 기간 기자의 <스핑크스>와 같이 양식화되었다. 형태와 주제에서 관습적인 제약이 많았으며 파라오 왕조를 이루어온 권력의 변화나 사회적 변동과도 무관하였다. 즉, 예술가 개인의 취향이 아닌 종교적 이상을 표현하고 사원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서 전승된 종교적 형식에 충실했다.²¹⁾



[도 10] 네페르티티
흉상

신왕국 시대에는 이크나톤(Ikmaton, Akhnaton, b.c 1379-1362년 재위)의 아마르나(Amarna) 양식인 <네페르티티 흉상> 초상 조각과 같은 혁신적인 표현도 나타난다. 이런 표현성은 과거의 양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변혁의 과정은 점차 이후의 조각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조각사에서 고대 그리스의 인체 조각 양식은 불변의 이상적 형식 양식으로 통한다. 비례에 의한 미적 규범인 카논(Canon)이 이에 해당하며 인체 조각의 유연한 운동감과 자세를 확립시킨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가 대표적이다. 고대

20) 조선일보, (2016년 1월8일), A26면

21) 메리 제인 오피, 정유경 역, (1997), 「조각」, 디자인하우스, p.20

그리스의 조각 양식은 아르카익기를 시작으로 클래식기와 헬레니즘기로 이어져 커다란 양식적 변화가 생긴다. 양식의 변화 이행은 얼굴 모습, 얼굴 모양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투박한 하관(하악골에서 턱에 이르는 모양)은 헬레니즘기에 이르러 좀 더 가름해진다. 관념적인 세계관에 의해 종교적 목적의 초상 조각으로부터 점차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행된 점을 초상 조각의 형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²⁾

초상 조각은 로마의 제정시대에 와서 점차 현실적인 인물 중심으로 변한다. 고대 로마는 전통적으로 조상의 두개골이나 데드 마스크를 집 안에 모셔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실물 같은 초상 조각이 생겨나는데,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개인의 업적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관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³⁾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인체 조각상을 제작했지만 로마는 선조 숭배를 위한 인체 조각과 함께 실존 인물에 대한 초상 조각을 수없이 제작했다. 특히 로마의 황제상과 같은 경우 광장이나 신전, 궁전, 군대의 막사 등과 같은 곳에 세워 황제에 대한 숭배 의식을 고취시키거나 황제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고자 했다.²⁴⁾ 이처럼 초상 조각은 생존 당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다양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초상 조각의 의미로 이어진다. 초상 조각은 로마시대 이후 양식화되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 11]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

유럽은 종교적 갈등과 지속의 역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중세 천 년 동안 기독교는 현실의 육체 보다는 종교적인 정신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오랫동안 초상화, 초상 조각과 같은 양식은 거의 출현하지 않다가, 르네상스에 이르러 인문주의와 고전주의의 재발견에 힘입어 비로소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중세의 초상 조각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을 시작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도상학적인 초상 조각만이 존재하였다. 15세기에 이르러 르네상스에 나타난 초상 조각의 양식 변화는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표현성이 다양해졌다. 미켈란젤로에 의한 인체 조각

의 표현력 확대는 생생한 정황을 포착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다비드 상>이나 <메디치가의 분묘>의 초상 조각에 나타난 상기된 표정은 신플라톤주의 철

22) 김석, (2018), 앞의 책, p.84

23) 데보라 J. 드위트 외 2인, 조주연 외 3인 역, (2017), 「게이트웨이 미술사」, 이봄, p.310

24) 홍진경, (2004), 「인간의 얼굴, 그림으로 읽기」, 예담, p.201

학을 배경으로 고전시대를 재해석하거나 중세 시대의 사회적 불합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점이 두드러진다.²⁵⁾



[도 12] 루이 14세의 흉상

17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에 나타난 초상 조각은 귀족적 취향과 맞물려 호사스럽고 섬세하며 장식적인 표현이 극대화되었다. 17세기는 점차 시민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했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이 이행되는 세계관을 가지며 망원경과 나침반의 발명으로 인해 항해술이 발달하였다. 이런 조건들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며 유럽 이외의 세계에도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²⁶⁾ 미술은 이런 사회 변화와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조각과 건축에서는 '공간'을 새

롭게 이해하고자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극적인 공간 표현을 시도하였다. 그 예로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 1598-1680)에 의한 <성 베드로 성당>의 공간 구성이 대표적이다. 초상 조각은 교회 권력과 왕, 귀족을 중심으로 건축적인 공간 속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표현되었다. 특히 프랑스 궁정 조각 중 <루이 14세의 흉상>과 같은 초상 조각은 대표적인 장식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 13] 디드로 흉상

17세기의 퇴폐적인 사회 분위기와 향락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은 일종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상 세계를 꿈꾸는 역설적 현상이었다. 이는 곧 18세기 고전주의의 부활로 연결된다. 타락과 향락을 거부한 계몽사상의 발현과 봉건사회의 거부 움직임은 시대적인 변화의 핵심이었으며 종교의 편협한 사상을 타파하고자 한 진보적인 개념 성립은 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18세기의 사회 현실이었다. 미술사에서 신고전주의에 해당되는 18세기 미술은 고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전미술의 재해석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나치게 몰입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

게 되는데 이른바, 고전 양식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모방한 점이다. 특히 초상 조각에서는 비트루비우스(Marcus Vitruvius Pollio)의 인체비례론을 통한 황금비

25) 김석, (2018), 앞의 책, p.85

26) 김석, (2012), 「한눈에 보는 조각사」, 지앤씨미디어, p.167

례가 규준적인 방식으로 통용되었으며, 인간의 얼굴에 수학적 황금비율을 적용시켜 기하학적 비례와 유기적 인체 비례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즉, 인체의 얼굴이 모든 신체 부분의 중심으로 작용한 셈이다.²⁷⁾ 이는 ‘창작’이라는 근본적 의미 구현을 뒤로한 채 제작 기법만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주제면에서는 고전시대 신화의 주제를 현실적인 인물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차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초상 조각 역시 이런 커다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고전주의 초상 조각가 우동(Jean-Antoine Houdon, 1741-1828)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다. <디드로 흉상>, <플랭크린>과 같은 그의 초상 조각은 완벽한 기법을 바탕으로 모델의 인간적인 면모와 생기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도 14] 코뼈가 부러진 남자

19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혁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상주의와 같은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의 양식은 점차 퇴색되었고 과거 전통의 답습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로댕에 의한 조각의 표현방식은 혁신적이었는데, 특히 평범한 소시민 인물인 권투선수를 주제로 만든 <코뼈가 부러진 남자>와 같은 초상 조각은 현실적인 시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반영했다. 이와 같은 조각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20세기 이전 초상 조각의 양상은 초상 조각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투영된 점을 알 수 있다.²⁸⁾

27) 오원영, (2014), 「인체비례론의 역사적 변천과 미술사적 의의에 관한연구」, 기초조형학연구, p.361-362

28) 김석, (2018), 앞의 책, p.86

3. 초상 조각을 통한 데포르마시옹의 작품 사례 분석



[도 15] 신미경, 「화장실 프로젝트」, 2004 - 진행 중

신미경의 [도 15]는 미의 화신인 비너스의 두상을 원재료와 상반되는 연약한 재료인 비누를 이용해 재현하고, 이를 화장실에 비치해 관람객이 손을 씻도록 유도한 퍼포먼스적 작품이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사용되다가 전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심미적 오브제로 변신하는 가치 전환(transition)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체를 작업의 요소로 이용한 작품이다.



[도 16] 데이비 한
「Battle of Conception」, 2010



[도 17] 데이비 한
「Mass of Perception」, 2012

데이비 한(Debbie Han)의 작품 [도 16, 17]은 다양한 문화권의 전형적인 얼굴 특징들(유대인의 코, 아프리카인의 입, 동양인의 눈 등)을 고전적 모티프인 비너스의 두상에 빚어내고 한국의 전통 도자기법을 사용하여 백자와 청자로 만든 작품으로, 이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 미의 개념이 변모되는 행태를 은유한다.



[도 18] 다니엘 아샴
「Blue Calcite Eroded
Moses」, 2019



[도 19] 다니엘 아샴
「Rose Quartz Eroded
Hamadryade」, 2019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의 작품 [도 18]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만든 모세상을 닮았으면서도, 방해석과 석영을 비롯한 광물질을 사용해 머리, 옆구리, 팔, 무릎 등 인체 곳곳이 침식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 19] 또한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고대 조각을 부식시켜 과거 대리석 조각의 백색과 대비되는 색을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는 물질의 본질을 바꿈으로써 시간이 변이된 형태를 표현하여 “과거가 곧 현재이고, 현재가 곧 미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Ⅲ. 작품제작 및 설명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초상 조각을 주제로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이용한 도자 조형으로 표현기법별 특징을 탐구하고 선택하여 초상 조각에 대입시킨다. 이를 통해 대상에 고착화된 이미지를 탈피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제작한다.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과 이에 따른 수용자의 감정을 분석한 후, 형태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적정 비율을 찾고 계획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품 제작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을 탐구하고, 그에 맞는 성형 기법을 선택한다.

둘째, 초상 조각 중 과거 실존 인물이었던 조각상을 대상으로 선택한다.





셋째, 선택한 초상 조각에 맞는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대입하여 작품을 진행한다.

넷째, 데포르마시옹 기법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1) 초상 조각 선정

다음의 <표 2>는 선정한 초상 조각의 종류와 선택 이유에 대해 설명한 표이다. 초상 조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대에는 정치적으로 힘이 센 인물들이 우상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근대에는 기존 권력을 타파하고 혁명에 성공한 인물들이 우상화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에는 매체와 대중의 인기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이 특정 집단의 우상으로 존재한다.

<표 2> 초상 조각의 종류 및 설명

종류	사진	선택 이유
아그리파 (Marcus Vipsanius Agrippa)		장군이나 가문의 인물로 정치력을 과시하고 숭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된 조각상이다. 권력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대상이라 선택하였다.
줄리앙 (Giuliano de' Medici)		
갈리아 전사의 두상 (La MArseillaise)		한국, 일본에서 히게(수염남자)라 불린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의용군 중 한 명의 모습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써 정치의 선두에 들어서게 된, 기존 권력에 반하는 인물상을 대변하는 대상이라 선택하였다.
슈스랑 (Suzuran)		1999년 일본 NHK의 인기 드라마 ‘스즈란(スズラン)’의 여주인공으로,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매체와 대중적 인기에 의해 특정 인물이 우상화된다. 한정된 집단 내에서 우상화된 대변자라 선택하였다.

2) 성형 방법

데포르마시옹 표현에 따른 성형 기법을 분류하고, 특징에 맞춘 상황 연출을 통해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각각의 표현으로 분석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표 3〉 데포르마시옹 표현에 따른 성형 기법

구분	성형 기법		표현
석고 몰드	공기 주입 (에어컴프레서)		왜곡
	공기 흡입 (진공청소기, 압축팩)		파손, 절단
실리콘 몰드	재료 혼합		과장

3) 재료 혼합

석고와 규석에 광물질을 첨가한 실험의 결과물로 가루 상태의 광물질을 섞은 후 물을 넣어 액체 상태로 실리콘 몰드에 주입하였다.

〈표 4〉 광물질의 종류에 따른 소성 결과

구분	카올린 10%	네프린 사이나이트 10%	장석 10%	볼클레이 10%
석고:규석 =45:45				
소성 후 결과	 강도 약함	 강도 약함	적합	강도 강함, 제작 시 어려움

위의 실험을 통해 카올린과 네프린사이나이트의 경우 소성 후 자화가 되지 않아 부스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볼클레이의 경우 실리콘 몰드 내에서 굳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성형과정에서 점성이 강해 주입이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석이 본 성형에 가장 적합한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2. 제작과정

테포르마시옹 기법을 이용한 도자조형은 아그리파 6작품, 줄리앙 1작품, 갈리아 전사의 두상 1작품, 슈스랑 1작품으로 계획하였으며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석고상의 석고 몰드와 실리콘 몰드를 제작한다.

둘째, 표현 방법에 맞게 일반 이장, 페이퍼 클레이 이장, 각 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혼합물을 제작한다.

셋째, 형태의 자유로운 왜곡 표현을 위해 캐스팅 기법을 이용한다.

넷째, 표현 방법에 따라 이장 배출 후 공기의 압축과 주입, 틀의 변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다섯째, 왜곡된 부위의 극대화를 위해 작품은 무유 소성을 기본으로 한다. 줄리앙 작품의 경우 내부에 색 안료를 사용한다.

1) 몰드 제작

기존 석고상을 이용하여 석고 몰드와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였다.

(1) 석고 몰드

원형의 크기에 따라 몰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원형의 형태에 맞춰 몰드를 제작하였다. 분할 선은 형태 변형에 용이하도록 분할하였다.



[도 20] 완성 된 석고 몰드

(2) 실리콘 몰드

자유로운 형태 표현을 위해 제작한 혼합물을 이용한 작품 제작을 위해서 변형이 용이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였다. 흙담을 쌓은 후 ShinEtsu사의 KE-1402 실리콘 제품의 주제와 경화제를 10:1의 비율로 배합하여, 24시간 경화한다.



[도 21] 실리콘 몰드 제작과정



[도 22] 완성된 실리콘 몰드

2) 이장 및 혼합물 제작

본 작업에 사용한 소지는 ‘한맥세라믹 마일드 소지’이며, 일반이장, 페이퍼클레이 이장, 색 이장(CM500A+9%)²⁹⁾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1) 일반 이장

이장의 비중은 1000ml일 때, 1750g으로 책정하였으며, 흙과 물의 비율이 68:32인 상태에서 물을 제외한 흙의 무게를 기준으로 안료의 첨가 비율을 계산하였다. 즉, 이장의 무게가 100g일 때 1%의 안료를 첨가하였다.

(2) 페이퍼클레이 이장

페이퍼클레이 이장은 성형이 자유롭고 갈라짐과 건조 및 소성에서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페이퍼클레이는 휴지를 물에 담가 섬유가 분리될 때까지 넣어둔 뒤, 느슨해진 휴지를 건져낸 후 준비된 마일드 슬립에 넣어 기계를 이용하여 슬립과 휴지를 골고루 섞어 제작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페이퍼클레이의 조합비는 다음과 같다.

29) 대원도재 안료

〈표 5〉 페이퍼클레이 조합비

구분	마일드 슬립	휴지(습식)
조합비	82	18



[도 23] 물에 불린
휴지

(3) 혼합물

앞의 〈표 4〉의 결과를 통해 장석을 선택하여 석고, 규석과 함께 파우더 상태로 혼합하였다.

〈표 6〉 혼합물 조합비

구분	석고	규석	장석
조합비	45	45	10

3) 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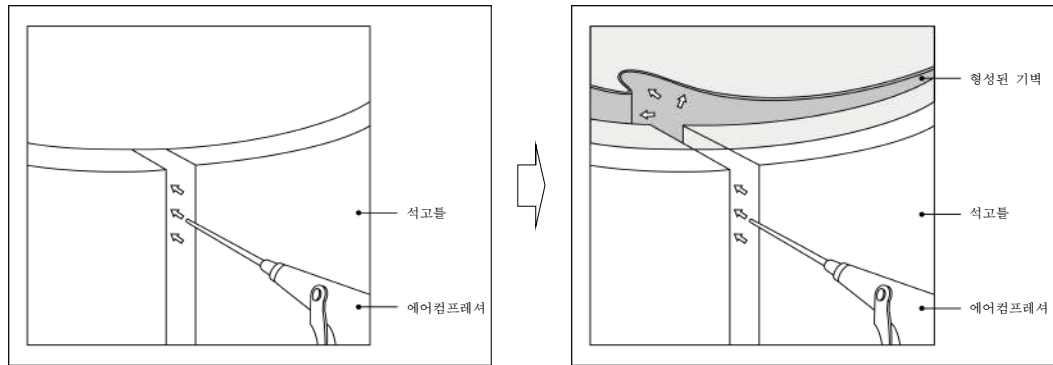
(1) 이장 주입 및 성형

본 작업의 경우 이장 배출 후 건조가 되기 전에 변형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 직후 내부에 슬립이 소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장 주입 성형의 경우 공기 주입과 흡입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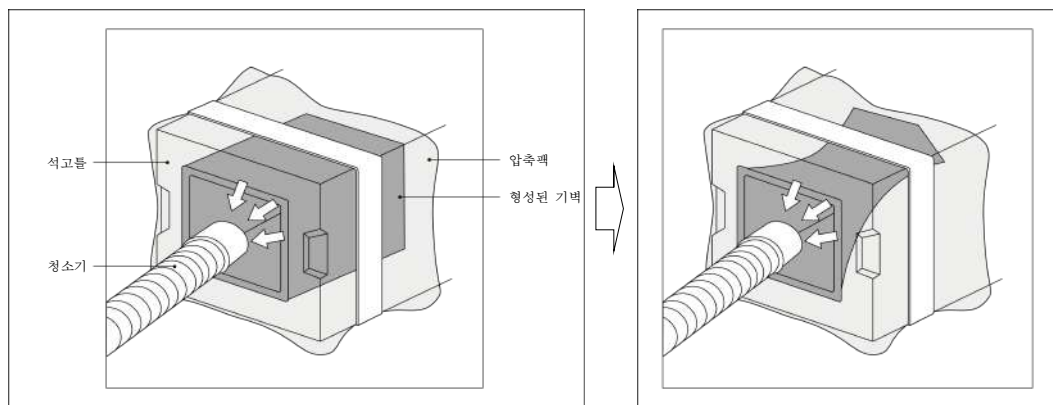
공기 주입 성형에는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하였으며, 흡입 성형에는 진공청소기와 압축팩을 이용하였다.

[도 24]는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한 성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석고틀의 이형 선 부분에 에어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주입한다. 주입 된 공기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기벽이 왜곡된다.



[도 24]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한 성형 방법

[도 25]는 청소기를 이용한 성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석고틀의 주입구 부분에 압축팩을 고정시킨 후 청소기로 공기를 흡입하여 석고틀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형성된 기벽을 수축시킨다.



[도 25] 청소기를 이용한 성형 방법

(2) 혼합물 주입 성형

실리콘 몰드를 이용한 주입 성형의 경우 몰드의 특성상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몰드를 고정한 다음 파우더 상태의 혼합물과 물을 섞어 주입한 후 건조가 끝난 뒤 탈형하였다.



[도 26] 혼합물을 이용한 작업 과정

4) 소성 및 기물 표면 연마

무유 소성으로 갈라짐, 찢어짐, 왜곡의 질감과 표면 디테일을 부각시켰다. 소성 과정에서 형태 변화가 많이 일어남으로 소성 시 가마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소성을 진행하였다. 탈형 후 성형 과정에서 스크래치나 잔여물이 기물에 많이 붙어있어 작업의 완성도를 위해 연마 과정을 거쳤다. 본 작업의 경우 잔금이나 파손된 부분이 많아 소성 전에는 기물 자체의 강도가 약해 작은 압력에도 쉽게 부서진다. 때문에 소성 전에는 최소한으로 연마 후, 860℃ 초벌 후 2차 연마, 1220도 무유 재벌 후 흐르는 물에 다이아몬드 사포를 이용한 3차 연마 과정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도 27] 초벌 소성 후
연마작업 전



[도 28] 초벌 소성 후
연마작업 후

3. 작품 해설

[작품 1] Deformation A1

[작품 1]은 아그리파가 가진 장군의 근엄한 이미지를 왜곡과 파손을 통해 탈피시키고자 하였다. 원형이 유지되는 정도에서의 파손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얼굴에 나타난 파손과 찌그러짐은 기존의 대상과 달리 모호하고 낯선 이미지를 준다.



[작품 1] Deformation A1

290x200x470mm

1220℃, Slip Casting

[작품 2] Deformation A2

[작품 2]는 얼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귀 부분의 파손을 통해 대상의 표정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귀가 벌어지면서 생긴 머리의 과장된 표현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고 관람자의 시선을 상부로 집중시킨다. 자신의 귀를 바라보고 있는 아그리파를 통해 관람자가 그의 시선을 인식하도록 하여 기존의 아그리파가 가진 단편적 이미지가 아닌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작품 2] Deformation A2

280x200x490mm

1220℃, Slip Casting

[작품 3] Deformation A3

[작품 3]은 두상 전체의 파손을 통해 대상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가 깨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껍데기처럼 씹어진 장군의 이미지가 데포르마시옹을 통해 파괴되어간다.

형태의 상실은 관람자로 하여금 인간의 파괴욕구를 충족시켜 일종의 일탈감, 쾌감을 느끼게 한다.



[작품 3] Deformation A3

280x190x530mm

1220℃, Slip Casting

[작품 4, 5] Deformation A4, Deformation A5

[작품 4, 5]는 공기의 강한 압력에 의한 형태의 왜곡으로 파손과 절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소성을 통해 분리된 조각들은 형태적 불균형으로 주저앉거나 벌어져 파손의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절단된 조각들은 와이어로 설치하여 파괴의 과정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연출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파괴본능을 갖고 있으므로 절단된 이미지를 통해 수용자로 하여금 1차적으로 쾌감과 일탈감, 대리만족을 준다. 또한 형태의 완전한 파괴는 비현실적 상황의 현실화를 통해 감정이 극대화 되어 파손에 의한 가상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작품 4] Deformation A4

450x250x650mm

1220℃, Slip Casting



[작품 5] Deformation A5

320x240x530mm

1220℃, Slip Casting

[작품 6] Deformation J1, Deformation J2, Deformation J3

[작품 6]은 줄리앙의 고귀하고 숭고한 이미지를 왜곡을 통해 탈피해나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내부에서 공기를 빼는 제작 행위는 껍질을 탈피하기 위한 내적인 싸움을 의미한다.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적 힘을 통해 개체는 대상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요동친다.

Deformation J1, J3의 경우 두상의 한쪽 면에 집중하여 왜곡을 표현하였다. Deformation J2의 경우 Deformation J1, J3에 비해 공기압을 높여 양쪽에서 압축되도록 표현하여 강한 왜곡에 의해 내부가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부에 인간의 피부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중첩시켜 작품의 파손을 극대화하였다. 작품의 내부는 색이장을 이용하여 벌어진 부분이 두 개의 레이어로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변형의 극대화는 2차적 표현인 왜곡에 의한 가상성으로 이어져 본질적 모호성을 가져온다.



[작품 6] Deformation J1, Deformation J2, Deformation J3

180x145x290, 165x150x290, 180x175x275mm

1220℃, Slip Casting

[작품 7] Deformation H1, Deformation H2, Deformation H3,
Deformation H4, Deformation H5, Deformation H6

[작품 7]은 혼합물을 이용하여 과장과 왜곡, 가상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액체는 유동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언더컷³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얇거나 미세한 형태까지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체 상태로 몰드에 주입 후 단 시간에 고체화시켜 탈형한다.

혼합물을 이용한 작품 제작을 통해 얼굴 형상의 내외부를 반전시켜 눈, 코, 입이 들어가거나 구겨지는 등 비현실적 상황을 현실화 시켜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움을 준다. 단순한 왜곡을 넘어 2차적 표현인 가상성을 통해 신선한 자극을 주고, 고체지만 액체적 성격의 유기적 표현을 통해 물질에 자유로움을 부여하였다.



[작품 7] Deformation H1, Deformation H2, Deformation H3, Deformation H4,
Deformation H5, Deformation H6

90x115x140, 65x60x140, 75x105x120, 70x65x160, 70x75x130, 70x50x150mm
1220℃, Silica, Feldspar, Plaster, Glaze

30) 언더컷(Undercut), 몰드로부터 분리하거나 빼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형의 부위, 사샤워텔(Saaha Wardell), (2003), 「슬립 캐스팅」, 예경, p.137

[작품 8] Deformation A6, Deformation A7, Deformation A8

[작품 8]은 석고 몰드 내에서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뽑아냄으로써 가슴과 얼굴의 절단을 일으켰다. 그 후 몰드를 일부 제거한 상태에서 재압축을 시도하였다. 신체에서 가장 특징적 부위인 얼굴의 분리를 통해 수용자가 개체의 표정과 왜곡의 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작품을 벽걸이 형식으로 설치하여 벽에 걸린 박제된 사슴의 머리처럼 개체의 대상화된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부서지고 갈라져 본질을 잃어버린 부정적 시각을 대상에 적용하여 심리적 혼란과 불편함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8] Deformation A6, Deformation A7, Deformation A8

250x160x170, 290x340x160, 200x400x120mm

1220℃, Slip Casting

[작품 9] Deformation A9

[작품 9]는 공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의 분리는 형태적으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요소의 파괴를 일으켜 가소성이 있는 상태의 기물에 변형을 가져온다. 두 개체는 대상 간의 시선을 이용해 서로가 마주 보게 배치하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일부, 내면이면서 타자로써 존재한다. 이러한 시선의 이동은 아그리파의 엄격한 이미지가 아닌 개체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여 한 인간으로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대상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이용한 단순화된 표현은 집중도를 향상시킨다.



[작품 9] Deformation A9

210x330x190, 90x200x120mm

1220℃, Slip Casting

[작품 10] Deformation G1, Deformation G2, Deformation G3,
Deformation G4, Deformation G5

[작품 10]은 내부의 압력을 이용한 Deformation A 시리즈의 작품들과 달리 에어컴프레서 만을 사용해 외부적 압력을 통한 왜곡을 표현하였다. 하나의 틀에서 복제되었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껍데기 속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얼굴이 내부로 들어가며 일그러진 형상, 몸이 찌그러져 뒤틀린 듯한 형상의 표현은 소녀상의 순결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즐거움과 해학, 낯선 느낌을 주어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동시에 준다. 이러한 비현실적 상황을 현실화 시킨 가상의 이미지는 수용자로 하여금 각각의 개체가 주는 즐거움과 신선한 자극을 경험하도록 한다.



[작품 10] Deformation G1, Deformation G2, Deformation G3,
Deformation G4, Deformation G5

220x160x285, 215x115x325, 175x110x315, 215x105x290, 225x210x280mm
1220℃, Slip Casting

IV. 결 론

본 연구는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별 특징을 분석하고 기법과 연관하여 초상 조각에 대입해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초상 조각에 데포르마시옹을 표현하고자 다양한 도자 기법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내부 공기의 흡입을 통한 수축은 초상의 왜곡을 일으켜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흡입 강도에 따른 강한 수축은 대상에 절단과 파손을 일으켜 인간의 파괴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셋째, 재료의 혼합과 몰드의 변형은 눈, 코, 입의 반전과 함께 고체에 액체적 성격을 부여하여 비현실적 상황을 현실화 시켜 균형감을 깨고 본질적 모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넷째, 재료의 혼합에 의한 작품 제작은 보다 유기적인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

연구된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은 대상화 된 초상 조각의 이미지를 탈피 시키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각적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감정으로 파생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과장, 왜곡, 절단 및 파손에 의한 1차적 감정의 극대화는 2차적 감정을 유발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가상성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을 초상 조각에 적용시킴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파괴를 통한 절단, 재료의 혼합과 몰드의 변형은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빠르게 2차 감정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하나의 몰드에서 공기의 주입과 압축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적 변화를 통해 하나의 대상에서 파생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다. 몰드를 같은 형태를 복제하는 도구가 아닌 대상을 가두는 틀로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는 과정을 통해 몰드 이용의 확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다양한 대상에 데포

르마시옹 기법을 적용시켜 형태적 변화를 전개해간다면 인간, 사물, 자연, 사회 등 모든 대상 속에 존재하는 고착화 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대상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김석, (2012), 「한눈에 보는 조각사」, 지앤미디어.
- [2] 데보라 J. 드위트 외 2인, 조주연 외 3인 역, (2017), 「게이트웨이 미술사」, 이봄.
- [3] 도서출판 승례문 편집국편, (1991), 「미술사전1」, 도서출판 승례문.
- [4] 마이클 하임, 여명숙 옮김, (1997),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 [5] 메리 제인 오피, 정유경 역, (1997), 「조각」, 디자인하우스.
- [6] 사샤워텔, (2003), 「슬립 캐스팅」, 예경.
- [7] 에드워드 루시 스미드, 김춘일 역, (1987), 「현대미술의 흐름」, 미진사.
- [8] 윤영범, (2013),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 커뮤니케이션북스.
- [9] 조선일보, (2016년 1월8일), A26면.
- [10] 최효잔, (2016), 「장 보드리야르」, 커뮤니케이션북스.
- [11] 홍진경, (2004), 「인간의 얼굴, 그림으로 읽기」, 예담.

학위논문

- [1] 김문경, (2004), 「데포르메 기법을 이용한 도자설치 작품에 관한 연구 : 식물형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도예과 석사논문.
- [2] 김보라, (2016), 「데포르마시옹을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성미, (2004). 「현대미술에서의 가상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수진, (2008), 데포르메기법을 이용한 인체 변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박수희, (2011), 「데포르메에 의한 만화 캐릭터 표현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배정민, (2008), 「DeLong 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7] 신정아, (2017), 「데포르마시옹 기법에 따른 광고유형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이금란. (1992), 「현대인의 소외현상에 관한 시각적 표현 - 데포르마시옹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정선영, (2003),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왜곡된 심상과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저널

[1] 김석, (2018), 「20세기 이후 얼굴 조각의 표현적 특징 연구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이전까지-」, 한국기초조형학연구

[2] 김은정 외 1명, (201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 오원영, (2014), 「인체비례론의 역사적 변천과 미술사적 의의에 관한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4] 이기열, (2007), 「현대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5] 이정숙 외 1명, (2009), 「디지털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 특성」, 한국기초조형학연구.

웹사이트

[1] 구글, <http://www.google.co.kr>

[2] 다니엘 아샴, <https://www.danielarsham.com/>

[3] 데비 한, <http://debbiehan.net/>

[4] 대원도재, <http://www.ceramate.co.kr>

[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6] 한국사립미술관협회, <http://www.koreanartistproject.com/>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using the Deformation Technique -Focusing on the Portrait Sculpture-

Chae, Yul

(Supervisor Choi, Byung Keon)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formation has been represented in various forms upon the evolution of trends in visual art. In modern times, deformation entails an extensive application as a medium to fulfill an atavistic desire for expression. We perceive the image of a subject rather than the subject per se. During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a statue was perceived as a sacred subject for worship, and its custom continues up to this day.

This study incorporates the distorted shape of an objectified sculpture by applying deformation technique to a portrait sculp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emotions provoked by abandoning the image ingrained in the portrait sculpture and presenting a question.

There search method is as followed. First, through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ormation technique, a relevant method of expression was selected to be adopted to the portrait sculpture created upon a real figure in the past times. Second, a shape was produced through air injection and compression within a mold in order to manifest various images of a subject. Third, different materials were mixed for the work to maximize the deformation effect.

The following entails the results drawn from the study. First, the deformation technique derives diverse emotions and the escalation of emotions induces a secondary emotion. Second, the extended use of a mold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changes from the air compression and injection within a mold. Third, the production with a mix of material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reaking the morphological boundary. The development of morphological transformation using a single mold upon an extended subject of deformation is expected to present the various perceptions on the essence of the subject.